

# 전주형 주민주도 동네복지 열매맺다

## 시, 33개동 동네복지 성과공유대회 개최... 송천1동·평화1동 등 7개 동 우수사례 발표

민선6기 전주시가 씨앗을 뿌린 동네 복지가 정착해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복지는 마을 주민들이 이웃을 보살피는 주민 주도의 복지체계로 현재 전주시 33개 전체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11일 전주시 33개 동 동네복지협의체 위원과 동장,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2017년 동네복지 성과공유대회'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각 동별 동네복지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먼저, 송천1동의 경우 민간협력을 통한 동네복지의 첫걸음으로 '이동멘토링'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와 학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협력해 아이들과 부모의 정서교감과 소통을 위해 영화 관람과 요리체험, 방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서신동의 경우, 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통장단으로 구성된 '우리는 이웃사촌'이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며, 동네복지팀과 구청, 병원, 자활센터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된 민간협력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구 노인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평화1동의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한 선진



2017년 동네복지 성과공유대회가 11일 전주시 33개 동 동네복지협의체 위원과 동장,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동으로 △저소득층에 밀반찬을 지원 하는 '친정엄마의 반찬' △장애이북 시설과 경로당을 찾아가는 '아름드리 봉사단' △치매와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에 취약한 홀로거주어르신을 돌보는 '반려식물 전달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서서히 이끌고 있다.

또한, 삼천2동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꽃피는 냉장고'를 운

영하고 있으며, 동산동의 '사람나눔 공간'과 '행복나눔동산', 인후3동의 '착한 플리마켓'과 '한옥마을 체험', 송천2동의 '가족자원봉사단'과 '무비데이' 등 각 동별로 특화사업들을 전개하며 이웃이 서로를 돌보고 있다.

이 외에도, 전주시 33개 전체 동에서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마을별 특성

을 고려한 민간협력 동네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우수사례를 발표한 송천1동과 평화1동, 송천2동, 서신동, 인후3동, 삼천2동, 동산동 등 7개 동을 대상으로 동네복지 시범동을 운영했으며, 지난 7월에는 33개 전체 동에 동네복지팀을 구성해 동네복지를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김민근 기자

# 김순정·서난이 시의원, 감사패 수상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대표로부터

전주시의회 김순정, 서난이 의원이 11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전북 ICT 융합컨퍼런스 & 송년의 밤' 행사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순정 의원



서난이 의원

이날 김 의원과 서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지역 ICT 산업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이바지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의 전한다"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ICT 산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ICT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 김현덕 시의원, 전주시4H본부 감사패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삼천1·2·3, 효자1·2동)이 지난 8일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전주시4H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현덕 의원

김 의원은 또 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전주시4H본부 등 농업인 단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김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덕 의원은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속사업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김민근 기자

# 무주덕유산리조트 "주민들과 상생 위해 노력할 것"

## 구천동관광연합회에 특별 할인 혜택 줘·위터파크 신축 검토 중·오수처리시설 기부체납

무주덕유산리조트 인근 무주구천동 지역 주민과 구천동관광연합회 상인들이 무주덕유산리조트 정문앞에서 "부영은 지역주민들과 맺은 지역상생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대해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규정과 원칙을 지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과 구천동관광연합회 상인들은 상생협약을 부영의 무성 의한 조건에 반발하여 시위에 나섰

다고 주장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일반 제휴사 및 고객들에게는 2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구천동관광연합회에는 2008년 26%, 2009년~2012년 28%, 2013년~2015년 29%, 2016년 27%와 스키상당 70매 한정 35%의 특별 할인 혜택을 주었다.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자구책으로 금년에는 25%의 할인율을 제안했지만 구천동관광연합회 상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했다.

2011년 부영그룹이 인수 후 매년 리모델링은 수시로 진행, 전객실 비품도 교체, 2016년 11월에는 100

실 규모의 유스호스텔 오픈, 2017년 3월에는 우정연수원을 신축했다.

다만, 위터파크 신축이 지연되는 이유는 지난 2015년 10월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위터파크 부지 내의 구거 문제를 해결 후 착공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지난 2년간 구거 매입을 추진하여 지난 8월에 매입이 완료됐다. 이후 10월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 인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얻고 위터파크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환경문제도 실천면유수인용대책 위원회와의 상호 협약 준수를 위해

1년에 6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매월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리조트뿐만 아니라 리조트 주변 삼거리 지역과 배방리, 관동지구 주민들의 생활오수까지 처리해 오던 오수처리시설을 지난 2012년 7월 무주군에 기부체납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시위가 장기화될 경우 무주군 지역경제 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관광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덕진구 청원 창의정책 아이디어' 6건 선정

## 차대식 '전주생태학습장, 핑크몰리 단지 조성' 최우수상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된 '2017 덕진구 청원 창의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심사를 최근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북북 뒤편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11일 덕진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내가 시장(구청장)이라면'이라는 주제로 덕진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장 전반에 대해 시민 및 직원 복리향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공모결과 행정,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분야 등 총 12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자체 심사와 제안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 아이디어

를 발표심사에 상정했고, 8일 PT발표 심사회를 개최하여 구청장, 과·동장, 덕진회(덕진구 유관기관·단체 대표 모임, 회장 이진화) 회원 등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표심사 결과 생태공원녹지와 차대식 주무관이 제안한 '전주생태학습장, 핑크몰리(분홍약새) 단지 조성'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버섯정류장 복지 INFORMATION'과 '업무시간의 전화 무인안내 멘트 도입' 등 2건이, 장려상에는 '위키프로젝트 대다 지원 프로젝트, 구내식당 반찬 가게 운영', '덕진연못, 사랑의 소원 분수 설치', '스물손 엘리베이터, 노란 발바다 설치' 등 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